

2월 소식 드립니다. - 2월 소식 드립니다.

Bwana asifiwe (좋은 주님을 찬양 합니다)

무더운 날씨를 불평하는 사이 어느 덧 2월도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2월 이 곳의 더위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동안 평안들 하셨는지요. 봄이 다가오는 환절기에 모두모두 건강 하시길 기도드리며 2월 소식 드립니다.

@ 탕가 신학교 (TCBC)

=> 전도폭팔 집중강의.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베엘교회의 전도폭팔 팀 4분이 방문 하셔서 1주일간 귀중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전에는 이론(강의), 실습은 오후에 이루어 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가 하나되어 좋은 결과를 맺을수 있었습니다. 애써주신 팀원 모두께 감사 드립니다.

=> 체육대회

해마다 첫 학기 초에 열리는 체육대회는 올해는 2월 24일 금요일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계기가 되며 신학생들 간에 친목과 각 학년의 협력을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모두 4팀이 경기를 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Staff팀이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 리빙스톤 소식:

=> LSBS 도서관 책 열람.

도서관 사서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빈 책장과 쌓여있는 책 박스들을 볼때마다 안타까움이 많았었는데 한국 KAIST에서 사서로 근무했고 현재는 초등학교 사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헬렌 선생님이 1주간 방문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직 책장의 빈 곳이 더 많지만 가지런히 정리된 책들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함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책이 채워지고 정리되어 학생들이 책과 친구되기를 즐거워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 합니다. 아울러 후방에서든 현지에서든 도서관을 잘 관리하고 학생들을 섬길 사서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 고등학교 입학시험 소식.

올해 7월 부터 시작되는 리빙 스톤 과학 고등학교의 제1회 입학시험이 토요일 (25일) 리빙스톤 본교와 탄자니아의 실질적 수도인 다르살렘 2곳 에서 실시 됩니다. 학생들을 받기에 아직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 남은 기간 안에 잘 준비 되리라 믿고 최선 다 하고 있습니다.

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건축 공사.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고등학교 기숙사 공사는 어느정도의 재정이 확보될때 까지 잠시 숨을 고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아 있는 공사는 3층 벽쌓기(1,2 층 벽쌓 기 마침)와 내부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3층까지 건물이 다 올라갔고 빨간 지붕이 예쁘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오랜시간 지체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 Misozew 교회 유치원 공사

학교 공사를 쉬는 동안 Misozwe(미소제) 시골 지역에 유치원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노량진에 소재한 신성 장로교회에서 작년에 미소제에 한 교회를 헌당했고 그 후속 사업으로 지역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도면이 준비되었습니다. 건물은 1동으로 작은 규모의 교실 4개와 사무실 1개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 선교사 동정.

=> 김진우 선교사님 사역지 도착.

지난 수개월 동안 고태일 선교사님께서 홀로 사역을 하셔서 안타까웠는데 드디어 아내되시는 김진우 선교사님이 도착 하셨습니다. 낯설은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을 잘 극복하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안타까운 소식은 오자마자 3주만에 말라리에 걸리는 신고식을 치르고 계십니다. 큰 고통없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주흥 선교사님 한국 방문.

최명철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김주흥 선교사님께서 무릎 관절 치료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 중에 계십니다. 다행히 좋은 의사 선생님과 병원을 만나 수술절차를 밟지 않고 치료가 시작 되었습니다. 치료기간은 3-4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후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한국에서 외국인 거주증을 통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함께 나눌 기도제목들.....

1. 신학교와 산돌중학교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평안과 고등학교 시작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2.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3. 미소제 지역 유치원 건축이 잘 진행 되도록.

새로 시작되는 3월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정과 하시는 일들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 합니다.

2017년 2월 25일

박선교사 가정 드림.